

ING생명... KDB생명... 롯데손보... MG손보

## 쏟아지는 보험 매물, 눈독 들이는 금융지주... M&amp;A 큰 장

KB금융, ING생명 거액인수 노려  
신한금융, 롯데손보 인수 가능성

올해 보험업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다수 보험사가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거론되는 가운데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가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과거 보험사는 비싼 몸값으로 인해 M&A 거래가 다수 불발됐지만 이번에는 매수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업권 재편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올해 그룹 내 취약점으로 꼽히는 KB생명을 보강해 금융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탄탄하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KB생명은 자산규모가 9조원 가량으로 업계 내 하위 수준이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좋은 매물(생보사)을 확보하기 위해 연일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KB금융, ING생명 인수면 업계 5위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경총'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구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윤 회장은 "시장에서 생명보험 쪽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부분을 보강했으면 한다"며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 보안을 구상 중이고, 국내외에서 좋은 물건이 적당한 가격에 나오면 가능성을 열고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의 해당 발언에 시장에선 KB금융그룹이 또 한 번 ING생명 인수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ING생

명은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지분율 59.15%)인 탓에 언제든지 시장 매물로 나올 수 있고 공교롭게도 MBK파트너스가 ING그룹과의 계약으로 올해까지만 ING생명이란 이름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에선 ING생명을 잠재적 매물로 보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2012년 ING생명이 시장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전에 한 차례 참여한 바 있다. KB금융이 자산규모 31조 원가량의 ING생명 인수에 성공할 경우 계열사인 KB생명과 합병을 통해 약 40조 원대 대형 생보사로 재탄생하게 된다. 단숨에 업계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다.

다만 일각에선 ING생명이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높은 인수가로 KB금융이 이 외 다른 매물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 KB금융은 지난 2012년 ING생명 인수전 당시 2조원대의 가격이 부담돼 협상을 포기했다. 시장에선 현재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ING생명 지분가치를 3조원 안팎으로 책정하고 있다. 때

문에 악화된 재정건전성으로 꾸준히 매각설이 나온 KDB생명이 KB금융으로선 차선책으로 꼽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높은 인수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접 생보사 M&A를 거론한 만큼 ING생명이 매물로 나올 경우 KB금융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 없는 신한금융, M&A로 시장 진출 모색

KB금융그룹과 함께 국내 양대 금융지주로 꼽히는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시장에서 롯데손해보험 인수설로 흥역을 치른 바 있다.

롯데손보가 시장 매물로 나온다는 소식에 손보 부문이 부재한 신한금융그룹이 관심을 갖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 신한금융과 롯데손보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 3일 열린 범금융권 신년 인사회에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M&A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며 "적당한 매물이 나오면 인수에

뛰어들 의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롯데손보 인수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은 물론 증권, 생명보험, 카드 등 업계 순위권을 다투는 신한금융에 있어 손보사 부재는 금융사업 구상의 난관으로 작용한다. 또 롯데손보로선 롯데그룹이 지주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는데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호텔 롯데이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을 최대 4년 안에 정리해야 하는 등 양측의 이해가 잘 맞아 떨어진다. 롯데그룹으로서도 롯데손보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성으로 업계 하위권을 면치 못해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MG손보가 악화된 재정건전성으로 매각설이 흘러나오면서 신한금융의 또 다른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며 "M&A를 통한 손보 시장 진출이 가장 손쉽다는 점에서 신한금융으로선 보험사 인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제약사 윤리경영은 'A등급', 내부고발 시스템은 '미흡'

1차 평균보다 7점 오른 '777점'

국내 제약사의 윤리경영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내부 고발 시스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14호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 기업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 제약산업과 ISO 37001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 항목 등을 점검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은 지난 2016년 10월, 협회 이사장단 18개사를 대상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한국제약바이오협회

로 첫 시행됐다. 이번에는 33개 이사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 이들 기업들의 평균점수는 777점으로 A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평균(18개사, 770점, A등급)

과 비교해 7점 높은 수치다.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대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는 보다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반적으로 1차 분석 이후 CP 전담조직 구성,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 지속적인 CP 준수를 통해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임윤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기업 내부고발 처리 절차의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고했다. 임 변호사는 내부고발 처리 절차를 통한 원칙적이고 투명한 사건 처리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줄여 역설적으로 내부고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활성화를 위해

선 무엇보다 기업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장은 '제약산업과 ISO 37001'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부패관련 정책흐름과 국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약산업에서 ISO 37001 인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준법경영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ISO 37001이 조직·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기획 이사는 윤리경영이란 선진 일류기업으로 가는 길임을 전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전략적 윤리경영의 실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됐다. 영국 약가제도 연구 TFT는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 의료기술 평가

와 의약품 가격규제안을 다뤘다. 아울러 의료기술 평가 절차와 실제 의약품 평가 사례를 국내와 비교·분석하고 의약품 가격 규제안의 최신 동향 분석을 통해 신약의 접근성 향상 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영 자율성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약가제도 연구 TFT는 신약과 제네릭의 최신 의약품 가격 결정 제도를 소개하고 의약품 급여와 사회보장제도 조달법, 약제비 총액 관리제를 분석, 국내 약품비 관리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약산업 이슈진단 분야에서는 정유태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가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른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산업 발전방향을 진단했다.

정 대표는 제약산업의 진화로 정책 목표가 다원적 정책 이해의 균형 유지에 있음을 강조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재정 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편의점·주유소 등 최저임금 준수여부 점검

고용노동부, 3개월 간 집중 계도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본격적인 점검활동은 이달 29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

해서 진행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카카오뱅크 출범 165일 만에 가입자 '500만 명' 돌파

전체 경제활동인구 18.0% 해당

카카오뱅크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출범한 지 165일 만이다. 여·수신 규모는 1조원에 육박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일 오후 3시에 계좌개설 고객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2.84초에 1명, 1시간당 1267명, 하루 평균 3만425명이 카카오뱅크에 가입했다.

하루 최대 가입자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해 7월 28일로 33만5498명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8.0%,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9.7%에 해당한다.

연령대별 가입자 비중은 30대가 34.9%로 가장 높고, 20대는 28.9%, 40대는 24.0%였다. 모바일 금융 소외 계층으로 여겨졌던 중장년층인 50대 이상은 11.9%를 차지했다.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는 전체 계좌개설 고객 중 74.6%에 해당하는 373만명이

신청했다. 이는 2016년 금융권 체크카드 누적 순증 규모 470만장의 80%에 달한다. 가입자 증가와 함께 예·적금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 7일 기준 예·적금 등 수신 규모는 5조1900억원, 여신은 대출 잔액 기준으로 4조76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1분기 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해외송금은 이용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5개월간 총 7만6500여건이 일어났다.

이용우, 윤호영 공동대표는 "출범 5개월을 갓 지나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기존 은행에서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 전반 진정한 '카뱅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